

after Silla advanced towards Han River basin in the middle of the sixth century, it was operated on the traffic routes leading to Chupungnyeong Route(秋酒嶺路), Gyerimnyeong Route(鷄立嶺路), and Jungnyeong Route(竹嶺路). During the Goryeo period, Mangyisanseong was related to Gwangjudo(廣州道) and Pyeonggudo(平丘道) among the 22 Yeokdo(22驛道, 22 stations of the Goryeo). The main stations in the Chungcheongbuk-do region led to Gyerimnyeong Route and Chupungnyeong Route and were connected to Jungnyeong Route. Mangyisanseong was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do, connecting major stations in the Chungcheongbuk-do region. Therefore, it was operated on a traffic route leading to those three routes. A beacon system was operated in Mangyisanseong during Joseon Dynasty, and it was also located at a key point. Located on the beacon route connecting Eumseong-Chungju and Cheongju of Chungcheongbuk-do, it received beacon from various places of Chungcheongbuk-do and delivered it to Anseong, Gyeonggi-do. Mangyisanseong was not only a strategic point during the time when the three kingdoms were competing, but also a key point for traffic routes and beacon routes from Unified Silla to the medieval times.

Keywords: Eumseong Mangyisanseong(望夷山城), Gukwonseong(國原城), Gaechasangun(皆次山郡), Jungwongyeong(中原京), Gaesangun(介山郡), Chupungnyeong Route(秋酒嶺路), Gyerimnyeong Route(鷄立嶺路), Jungnyeong Route(竹嶺路)

기획논문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

김봉근*.최래인**.최범식***

-
- I. 머리말
 - II. 음성 망이산성 현황
 - III. 주요 사례 분석
 - IV.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음성 망이산성은 삼국시대 백제에 의해 축조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된 산성으로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속 유산’이다. 본고에서는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곽유적 가운데 주요사례를 분석하여 비교·검토하였다.

음성 망이산성에 대한 보존·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은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원형 보존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보존과 정

* 중국 北京大學 박사(제1저자)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 충청북도 음성군 학예연구사(교신저자)

비,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학술조사(시·발굴조사) 및 학술연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보존·정비 및 활용에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상호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바, 음성 망이산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학술적, 행정적,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음성군은 망이산성의 보존과 관리 및 사적 승격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앞으로 진행될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이 이후 문화재 관리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음성 망이산성, 보존, 정비, 활용 방안

I . 머리말

망이산성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와 대사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일원에 걸쳐있는 망이산(望耳山)의 해발 472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산성은 정상부를 중심으로 백제에 의해 초축되어, 둘레 약 250m의 퇴피식 토성(내성)과 그 외부로 정상부와 북동쪽의 계곡부를 포함한 전체둘레 2,080m의 포곡식 석성(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망이산성은 그동안의 시·발굴조사를 통해서 백제에 의해 초축되었고,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까지 사용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봉화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벽이 축조되기 이전인 청동기 시대 후기의 유물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이산성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포괄하는 ‘연속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망이산성은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6년 6월 3일 경기도 기념물 제138호, 2003년 4월 11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되었다. 망이산성에 대한 보수·정비는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각 보수·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남치성과 남치성 내·외측의 탐방로, 남성벽과 남성벽 일대 집수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2017년도에는 서·남성벽 일부와 성벽 내·외측의 탐방로, 집수지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 바 있다. 현재까지 망이산성에 대한 보수·정비는 모두 충청북도 음성군 구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¹⁾.

최근 문화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이에 따라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문화재를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통과되는 등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한 강화되고 있다²⁾. 그러나 이면에는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는 정비, 전시행정,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활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이한용, 2017, 308쪽). 또한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에 대한 노력에 비해 정작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곽 문화재의 경우 원형을 훼손하는 정비·복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윤성호, 2019, 138쪽), 바람직한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어느 때보다 절

-
- 1) 망이산성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구간은 삼성면 양덕리 산30-1번지 일원 망이산의 정상부와 서남쪽 능선을 따라서 내성의 대부분과 외성의 서·남성벽과 동성벽 일부가 포함된다.
 - 2) 해당 법안에 망이산성은 ‘중원역사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그간 ‘중원역사문화권’이 가지고 있던 위상이나 최근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점(성정용·양시은, 2021)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망이산성 또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발굴조사와 정비가 이루어진 충청북도 음성군 구간의 산성 보존·정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음성 망이산성 현황

1. 학술 조사·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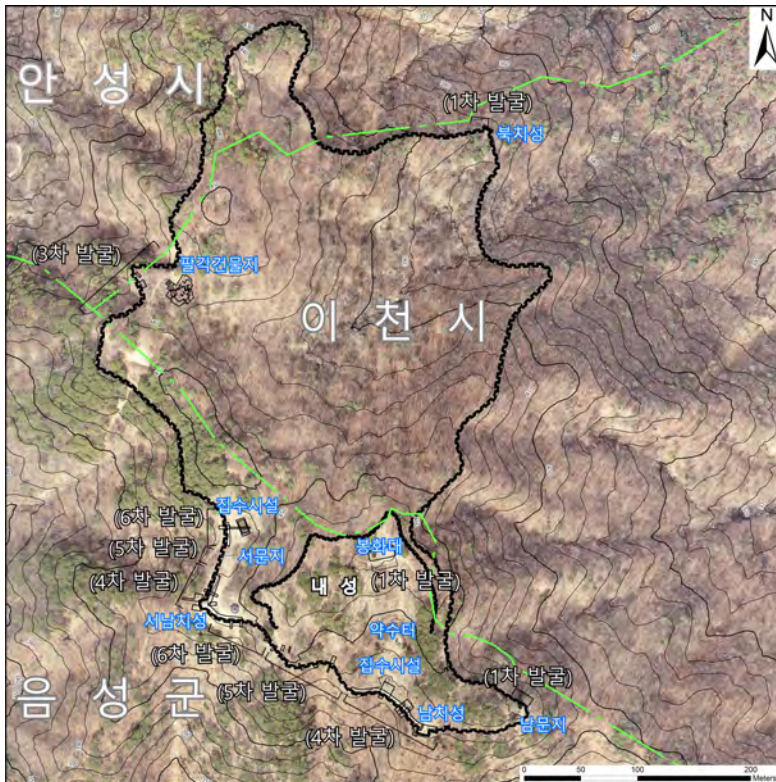
이산성은 1983년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충청북도, 198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2, 1996, 199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201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선행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해보면 망이산성은 백제에 의해 축축되었고,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까지 사용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봉화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벽이 축조되기 이전인 선사시대(청동기시대)의 유물도 확인된다(<표 1>, <그림 1>).

<표 1> 망이산성 학술조사 현황

연도	조사기관	주요 조사내용	출전
1983	단국대학교 박물관	망이산성 답사	1983, 『中原文化圈遺蹟精密調査報告書』
199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이산성과 봉화대 규모 ● ‘官’자명 등 기와 출토 	1992, 『망이산성 학술조사보고서』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동기~조선시대 유구와 유물 출토 ● 백제 토성(내성)과 통일신라 석성(치성) 	1996, 『망이산성 발굴조사보고서1』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문지 및 입수구 조사 ● ‘峻豊四年(963)’명 등 기와 출토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2001	국립청주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 횡장관 갑옷 	2002, 『年報2001年度』 2004, 『年報2003年度』

200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이산성 충북구간 현황과 약 	2002, 『望夷山城-忠北區 間地表面調査報告書』
200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괄각건물지, 수혈, 배수로 ●서치성 	2006, 『안성 망이산성 3 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7	중원문화재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남·남치성 현황 파악 ●석축 집수지와 수구, 배수 로 확인 	2009, 『陰城 望夷山城I충 북구간 발굴조사 보고 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치성~서남치성 구간 성 벽 복원을 위한 조사 ●배수로 및 토광묘 확인 ●‘京’명 기와 출토 	2013, 『陰城 望夷山城II 忠北區間 發掘調査 報告 書』
2014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남치성~남치성 구간 성 벽, 집수지, 배수로 조사 	2016, 『음성 망이산성 -2014 발굴조사 보고서』



<그림 1> 망이산성 조사 현황도((주)테라픽스 제공)

한편, 현재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을 기준으로 망이산성에 대한 연구 성과는 학술논문 6편, 학위논문 6편으로 총 12편 정도가 확인된다. 연구 주제별로는 망이산성 관련 2편, 토기 관련 2편, 철기 관련 3편, 와전 관련 2편, 건축 관련 2편, 봉화대 관련 1편이다.

<표 2> 망이산성 관련 연구 현황

번호	저자명	연도	논문명
1	정영호	1980	「陰城 望夷城에 대한 小考」 (『月刊 文化財』 102, 月刊文化財社)
2	정기범	2002	조선후기 충북 동북부의 도로와 취락 : 陰城地域을 중심으로(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유재은	2003	古代 鐵器의 微細組織 分析과 製作技術 研究 : 京畿地域 山城 出土 遺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한준영	2003	「百濟 漢城期の 城郭出土 土器 研究」(『先史와 古代』 18, 韓國古代學會)
5	이진현	2004	안성 봉업사지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배치구성요소와 배치변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권상열 외	2005	「望夷山城 出土遺物의 性格」 (『考古學誌』 14, 국립중앙박물관)
7	김현정 외	2006	「방사선투과시험에 의한 망이산성 횡장판갑(橫長板甲)의 제작기법연구」(『박물관 보존과학』 7, 국립중앙박물관)
8	강진주	2006	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오강석	2007	百濟 漢城期 城郭 研究(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최광식	2007	「한·중·일 고대의 제사제도 비교연구-팔각건물지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7, 韓國古代學會)
11	이혁희	2013	漢城百濟期 土城의 築造技法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김병희	2018	「문자기와를 통한 안성 봉업사의 성격 연구」 (『白山學報』 112, 白山學會)

망이산성 관련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봉화대를 비롯한 성내 주요

유구와 출토 유물의 대부분이 음성지역에서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성의 소재지를 음성이 아닌 안성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12편의 논문 가운데 행정구역상 안성시에 있는 팔각건물지에 대한 연구 1건을 제외하더라도 5건이 망이산성을 안성시로 표기하고 있다(<표 2>). 물론 망이산성은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음성군과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이천시에 걸쳐 있으나, 대부분 구간이 음성군에 해당하는 토루(내성)에 대한 연구조차 그 소재지를 안성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유적 보존·정비 현황

음성 망이산성은 2012년과 2017년 총 2차례 보존·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성 망이산성 외성 성벽 정비(1차)

-
- ▶ 사업명: 음성 망이산성 남측성벽 보수공사
 - ▶ 사업기간: 2012년 5월 8일 ~ 2012년 11월 20일
 - ▶ 사업예산: 246,998,000원
 - ▶ 시행사: 고당건축사사무소
 - ▶ 사업구간: 4차 발굴조사 남평탄지 일대
-

2012년 남측성벽 보수공사는 5월 8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 망이산성 남치성의 서북측 40m 부근의 남성벽 구간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 일대는 2007년 4차 발굴 지역으로 성벽 외에 집수시설과 수구가 조사된 바 있다.

남성벽의 정비는 잔존상태가 양호한 구간을 제외하고 붕괴 및 유실된 구간을 해체·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비 과정에서 붕괴된 성돌 등을 최대한 사용하였으며, 성돌의 접촉면의 마찰력을 높여 외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성돌은 앞면 접촉면을 넓히고, 뒷고임돌 및 속채움돌을 잘 다진 후 세로로 어긋나게 쌓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성돌 보충은 해체면석의 15%, 붕괴면석의 80%로 하고, 주변채집

면적은 붕괴면적의 20%로 하였다.

남치성에는 방부목 계단을 설치하여 성내 탐방을 위한 동선을 확보하였고, 집수시설의 경우 유실 방지를 위해 두께 10~13cm정도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집수시설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남성벽 구간 중 가장 낮은 지점에 배수구를 설치하였으며, 집수시설에 출수구를 따로 확보하여 보완하였다(<사진 1>).



<사진 1> 음성 망이산성 2차 정비(음성군청 내부자료)

①·②·③ 외성 남성벽 정비 후 ④ 집수지 정비 후

2) 음성 망이산성 외성 성벽 정비(2차)

-
- ▶ 사업명: 음성 망이산성 성벽보수사업
 - ▶ 사업기간: 2017년 5월 ~ 2017년 8월
 - ▶ 사업예산: 260,661,000원
 - ▶ 시행사: 건축사사무소 간향
 - ▶ 사업구간: 6차 발굴조사 I 지점 성벽구간
-

2017년 성벽보수사업은 동년 5월부터 8월까지 망이산성의 서측인 서남치성에서 북측으로 65m 떨어진 지점의 19.5m 석축 구간에 대해 진행되었다. 해당 정비구간은 2013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구간으로 집수지와 수구는 복토되었고, 성벽은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다. 정비는 주변에서 채집된 성돌(가로 20~40cm, 세로 15~25cm, 뒷길이는 20~40cm)을 바탕으로 기존의 성돌 쌓기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성돌의 80%, 채움석의 70%는 현장에서 채집된 돌을 활용하였다. 집수지는 복토를 제거하고 호안석축을 자문의견에 맞추어 복원하였고, 수구는 잔존 바닥석과 개석, 측벽을 해체 후 다시 축조하되, 부족한 석재는 외부에서 반입하여 복원하였다. 또한 성 내부에 조성된 기존 잔디 배수로는 발굴조사로 인해 끊어져 있었기에 수구까지 다시 연결한 다음, 수구 앞에 침사지를 만들어 토사가 수구로 진입하지 않도록 정비하였다(<사진 2>).



<사진 2> 음성 망이산성 2차 정비

(①·③ 음성군청 내부자료; ②·④ 필자 촬영)

①·② 외성 성벽 정비 전후 ③·④ 집수지 정비 전후

이상과 같이 정비가 이루어진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벽과 문지는 발굴조사 이후 복토되었거나 방수포로 덮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내 건물지와 집수지, 봉화대 등도 복토되었거나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관리 부재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거나 잡목과 잡풀에 둘러싸여 있어 원형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3. 유적 시설 현황

음성 망이산성의 시설물은 크게 유적 및 유구 설명 안내판과 등산로 및 탐방로를 비롯하여, 정자, 휴게의자,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과 소방·방재 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등산로 및 탐방로

현재 망이산성의 등산로는 안성시 일죽면과 음성군 삼성면으로 통하며, 음성군방향 등산로는 양덕리에서 신한정밀공업 방향과 매산낚시터 방향으로 구분된다. 등산객들은 대체로 주차가 용이한 음성군 양덕리 신한정밀공업 방향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다. 음성군 방향 등산로의 경우, 등산로와 그 주변에 잡목들이 방치되어 있다.

음성 망이산성의 탐방로는 성 내·외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벽의 정비가 이루어진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탐방로는 관리 부재로 초목이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외성 남치성에서 동남 진입로로 이어진 탐방로는 좁고, 외측으로 절벽구간이 형성되어 있어 위험하지만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2) 안내판

음성 망이산성에는 총 27개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 가운데 문화재 관련 안내판이 8개소,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길찾기안내판이 16개소이며, 나머지 안내판들은 관할 면사무소 또는 주민들에 의해 설치되거나 설치 주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다.

탐방객이 집중되는 봉화대와 약수터 일대에는 다양한 안내판들이 혼재하고 있어 탐방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³⁾. 또한, 음성 망이산성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등산로인 양대리 방향 등산로에는 대형 안내판에 등산로가 4곳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양덕리와 용대리 방향을 제외한 등산로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 탐방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 관련 안내판의 경우, 음성 망이산성을 전체적으로 안내해주거나 설명해주는 종합안내판과 성벽과 문지, 치성, 건물지, 집수지, 봉화대 등 개별유구를 해설하는 안내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집수지는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유구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사진 3>).



<사진 3> 안내판 현황(필자 촬영)

- ① 산성 안내판 ② 등산로 안내도 ③ 길찾기안내판 ④ 봉화터 표지

3) 음성 망이산성 길찾기안내판 가운데, 칠장사를 표기하고 있으나 칠장사는 실제로 망이산성의 서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다.

3) 편의시설

음성 망이산성에는 휴게의자(벤치)와 정자, 약수터,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비교적 최근에 성치된 정자와 운동시설 등의 일부 편의시설은 상태가 양호하다. 특히 정자는 서남치성 일대에 설치되어 있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전망대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반면, 성 내·외에 설치된 휴게의자와 등산로 중간부분에 설치된 전망대는 노후화로 인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한편, 등산로 입구와 성내에 화장실이 없어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등산로 입구 맞은편의 신한정밀공업 앞 도로 주변의 공터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사진 4>).



<사진 4> 편의시설 현황(필자 촬영)

- ① 정자 ② 약수터 일대 ③ 휴게의자(훼손) ④ 등산로 입구 공터 주차

4) 소방·방재 시설

현재 망이산성 내 소방·방재시설로는 화재 및 응급 상황시 이용할 수 있는 헬기장 1개소와 산불감시초소(산불감시탑) 1개소가 있다(<사진 5>). 헬기장은 안성시 방향 등산로에서 망이산성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으며, 산불감시초소는 외성 남성벽에서 봉화대로 이어지는 등산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산불감시초소의 경우, 산성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산불감시기능이 떨어지고 즉각적인 대처가 쉽지 않다. 또한 화재 발생시 탐방객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소화기와 모래, 삽 등의 소방장비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 5> 소방·방재시설 현황(필자촬영)

① 헬기장 ② 산불감시초소

Ⅲ. 주요 사례 분석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관리 및 운용하는 성곽유적들의 보존·정비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사례들은 종합정비계획과 연차적 보수·정비 이력을 근거로 하여, 망이산성과 유사한 여건을 가진 한반도 중부지역 성곽 사례 7개소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운용실태, 보존·정비사례 문제점 등을 검토해보았다.

1. 보은 삼년산성

보은 삼년산성은 사적 제235호로서, 5세기 후반 신라의 축성기술을 대표하는 산성이다. 성의 전체 둘레는 약 1,800m로 성벽은 납작한 돌을 이용해서 한 층은 가로 쌓기를 하고, 한 층은 세로 쌓기를 하였다. 문지는 동서남북 4곳에서 확인되었는데, 후대에 무너진 성벽을 정리하고 새로 개구부를 마련한 북문을 제외하고 초축 당시에 만들어진 서문지·남문지·동문지는 모두 계곡의 중심부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시설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성 내에는 연못과 우물지가 있다(한국성곽학회 2008, 130·184쪽)

보은 삼년산성은 1971년 서쪽 성벽구간 보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정비·복원이 이루어졌으며, 2001년과 2006년, 그리고 2008년까지 총 3차례의 정비계획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지표 및 발굴조사가 1976년도의 기초조사부터 2010년도 동문지 2차 발굴조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표 3>).

<표 3> 보은 삼년산성 학술조사와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학술조사	1976	기초 조사	보은군
	1980	서문지 발굴조사	충청북도·보은군
	1982	추정 연못터 및 수구 발굴조사	충북대학교박물관
	1987	성벽구조 및 서북지 발굴조사	보은군
	2003	아미지·우물터 발굴조사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4	동·남·북문지·건물지 발굴조사	중원문화재 연구원
	2005	아미지 정비구역 발굴조사	
	2006	남측성벽 및 동쪽성벽의 내측성벽 발굴조사	
	2007	남문지 내측과 서남곡성 발굴조사	
2010	동문지 2차 발굴조사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정비 계획	2001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 학술자료 정리 및 단기 발굴 계획 수립, 기본 정비방향 수립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6	장기적 발굴조사 및 정비 기초 계획 수립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중부내륙지역 산성들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정비·복원 대책 마련	한국성곽학회
보존 · 정비 및 활용	1971	서쪽 성벽 45m 보수	보은군
	1976	서쪽 성벽 45m 보수	
	1980	서쪽 성벽 15m 보수	
	1982	서쪽 성벽 15m 보수	
	1983	아미지 준설	
	1987~ 1999	서쪽 성벽구간 보수	보은군
	2001	성 내 수목정비	
	2002	성 내부 탐방로 정비	
	2005	아미지 및 탐방로 정비	
	2015	역사테마공원 조성	
	2016	대장간주막 조성	
		서문지 치성 보수 및 탐방로 목재계단 정비	
2017	역사탐방로 조성 및 잡목 정비		
2018	대장간·주막 전시실 구축 주변 정리 및 기초자료 조사		
2020	삼년산성 내 위험시설(석축 등) 정비		

현재는 문지와 성곽 주요 부분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벽 안쪽과 성 내부에 탐방로 또한 잘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그리고 관리인과 문화재해설사가 상주하는 안내소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주변 인근에 역사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주변 도로가 잘 개설되어 접근성이 좋아 도보 여행이나 단체 문화유적 답사, 역사교육의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우제 등 각종 전통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삼년산성 보존·정비상의 문제는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부실 정비계획 수립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비계획 부재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각각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성벽 복원의 경우 2000년대 이전부터 이미 성벽구간의 상당부분이 정비계획 및 충분한 학술조사 없이 복원되면서 기존 성벽축조에 사용된 석재와 전혀 다른 석재가 사용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복원 성벽구간은 탐방객으로 하여금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성벽 복원으로 인해 삼년산성은 우리나라 성벽 복원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백종오, 2016, 294~295쪽).

② 부실한 정비계획수립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비계획 부재

3차례 제시된 기존 정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1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수립한 『三年山城 -기본 자료 및 종합보존·정비계획 안-』의 경우 340쪽에 달하는 보고서 내용 중 산성의 보존·정비 관련 내용이 4쪽에 불과하다(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1, 259~262쪽). 그리고 동시기 (주)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수립한 『三年山城 保存管理 綜合計劃』의 경우도 탐방동선을 도면으로 제시했다는 점 외에는 성벽 현황조사 및 향후 발굴계획만 제시하여 종합적인 보존·정비계획이라 보기 어렵다(報恩郡·(주)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 2001). 또한, 2006년 중원문화재연구원과 2008년 한국성곽학회에서 수립한 정비계획 역시 장기적 발굴계획이 제시된 점을 제외하고 정비 대책이 약 1쪽 분량으로 소략한 편이며, 그 내용 또한 2001년 정비계획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한국성곽학회, 2008).

이와 같이 기존 정비계획들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종합정비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 성벽 복원 위주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정비·복원상의 문제점은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보은신문 2008년 11월 26일 기사). 문화재청이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⁴⁾,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2. 단양 온달산성

단양 온달산성은 사적 제264호로 산성의 둘레가 약 683m인 산정식 석축산성이다. 『삼국사기』 열전에 온달과 관련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가 초축하여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초까지 활용되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성벽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고대 성곽의 축성법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한국성곽학회, 2011, 45·47쪽).

단양 온달산성은 1989년도에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2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북성벽과 치성 및 서성벽 일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서벽과 남벽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한편, 충청북도에서 중부내륙지역 산성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현황 파악과 정비·복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단양 온달산성은 보은 삼년산성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전부터 성벽과 탐방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표 4>).

<표 4> 단양 온달산성 학술조사와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학술조사	1989	지표조사 실시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2002	북성벽과 치성, 서성벽 일부 시굴조사	충북대학교박물관
	2011	서벽과 남벽에 대한 발굴조사	충주대학교박물관
	2012	북벽 입수구 및 성내 시설 발굴조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2015	집수시설 및 동쪽 성벽 발굴조사	

4) 문화재청 훈령 제407호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0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2016	2015년 조사된 주거지·석축 유구의 현황과 성격 파악 및 동성벽 발굴조사	
정비 계획	2008	단기 발굴조사계획 및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용 방안 수립	단양군
	2011	중부내륙지역 산성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정비·복원 대책 마련	충청북도
보존 · 정비 및 활용	1995	동문지 주변 성벽구간(26.5m) 보수	단양군
	1996	동문지~북문지 성벽구간(73.5m) 보수	
	1997	남문지 및 주변성벽 보수	
	1998	남문지 서측 성벽구간 보수	
	2002	북쪽 치성, 기단보축성벽 보수	
	2005		
	2006~ 2009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면,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었고, 산성 아래쪽에 드라마세트장과 온달동굴이 있어 산성·동굴·드라마세트장을 연계한 온달관광지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단양온달문화축제가 개최되어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단양 온달산성 복원·정비상의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과 산성 내 편의시설과 안내가 부족한 점이다. 각각의 문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온달산성은 2000년대 이전부터 성벽 복원이 이뤄진데 반해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0년대 들어서야 이루어져 현재 복원된 성벽은 모두 현대식 석축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하였듯 현대식 성벽 복원은 탐방객에게 이질감을 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존 성벽구간과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달산성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② 산성 내 편의시설과 안내 부족

현재 온달산성은 산 아래의 드라마세트장·동굴·전시장과 함께 ‘온달

관광지'로 묶여 있으나, 실제 서로 인접한 드라마세트장·동굴·전시장과는 달리 가파른 경사로를 30분가량 올라야 한다. 그런데 성 내·외부에 탐방객이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에 남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경관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어렵고, 또한 성내 발굴조사 성과를 활용한 안내가 없어 산성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3. 단양 적성

단양 적성은 사적 제265호로서, 6세기 전반 신라의 남한강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 석축산성이다. 1978년, 성 내부에서 단양 신라적성비(국보 제198호)가 발견되었는데, 산성을 '적성(赤城)'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범흥왕과 진흥왕 때 신라가 죽령(竹嶺)을 넘어 한강의 상류지역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이용되었다(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45·81쪽). 성벽은 가파른 절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현재 북동쪽을 제외한 일부 성벽이 유실된 상태이다.

단양 적성은 2011년도에 충주대학교박물관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성벽의 보수와 편의시설을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인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성벽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주로 동성벽의 복원이 이루어졌다(국립충주대학교박물관, 2011, 70쪽). 지표 및 발굴조사는 중앙고속도로의 건설이 진행되면서 1990년도 충북대학교박물관에서 처음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듬해 지표조사와 단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 2015년에야 비로소 첫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표 5>).

성내 편의시설로는 북서쪽에 정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성 남동측 단성 벽화마을에 산성 진입로와 주차장,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의 단양 팔경휴게소에도 산성 진입로가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표 5> 단양 적성 학술조사와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학술조사	1990	현황조사 실시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1	지표조사 및 단기 정비계획 수립	
	2015	1993년 성벽 보수구간 기저부에서 토축부 확인	한성문화재연구원
정비계획	2011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립충주대학교박물관
	2020	성곽 보수공사 실시설계	단양군
보존·정비 및 활용	1991~2009	성벽 보수공사(430m)	
	2017	관람편의시설 설치	
	2017	성곽 보수	
	2020		

단양 적성은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이 이뤄진 점과 외부 탐방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①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단양 적성은 보은 삼년산성, 단양 온달산성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발굴조사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성벽이 복원되었다. 따라서 성벽 복원에는 주로 신재가 사용되었으며, 현대 도시의 축대를 연상케 한다.

② 외부 탐방로 관리 부실

현재 단양 적성 외부 탐방로는 관리가 부실하여 수풀이 자라는 여름의 경우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탐방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탐방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4. 인천 문학산성

인천 문학산성은 시 기념물 제1호로서, 성벽의 전체 둘레가 약 587m인 산정식 석축산성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인천군 남산석성(南山石城)으로 기록되어 있으며⁵⁾,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

대로 편년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산성 내부에 우물과 봉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1950년대 말, 미군이 산 정상부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실되어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한울문화재연구원, 2020, 3:35~44쪽).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군사시설이 자리한 정상부 일대는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비로소 개방되었다(인천투데이 2015년 10월 14일 기사). 최근 개방시간이 확대되어 야경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인천뉴스 2020년 10월 11일 기사).

문학산성은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1997년 문학산성 서측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까지 지표조사만 이루어지다가 2019년에 이르러서야 성벽 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표 6>). 성벽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평행선문 기와와 백자편을 근거로 문학산성의 축조 및 운영시기를 통일신라 말부터 조선시대까지로 추정하고 있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국토문화재연구원, 2021, 15:81~84쪽).

성내 정상부에는 문학산역사관과 전망 데크, 문학산 글자 조형물 포토존, 화장실, 일부 군 시설물이 있다. 문학산 서측 진입로에는 시멘트 포장도로와 각종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심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산 아래에는 문학장미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문학산성의 보존·정비는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산성과 성벽에 대한 안내 부족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문학산성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문학산성의 현대식 성벽 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잔존하고 있는 성벽을 모두 ‘보수’라는 미명하에 초축 성벽과 개축된 성벽 구분 없이 정비한다는 문제가 있다(백종오, 2016, 314~315쪽). 더

5) 『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죽산현. “竹山縣 本高句麗皆次山郡 新羅改爲介山郡 高麗改爲竹州”

구나 이렇게 복원된 성벽은 사후관리도 부족한 편으로, 현장 답사 결과 성벽 주변에 잡목이 자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② 산성의 설명과 안내 부족

문학산성의 경우 탐방객이나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 있고, 문학산 정상부에는 산성과 관련한 설명과 성벽의 위치 안내 등을 찾아볼 수 없어 관람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일반 탐방객들은 주로 포털사이트의 홍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표기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문학산에 오르는 탐방객들의 주 목적지인 정상부에서도 산성의 설명 및 안내의 부족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표 6> 인천 문학산성 학술조사와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학술조사	1997	문학산성 지표조사	인천광역시· 삼성건축사사무소
	1999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박물관
	2004	문학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문학산 일대 고려시대 유적조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2016	인천 문학산 숲 복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7	정밀 지표조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2018	인천 문학산 제사유적 발굴조사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9	성벽추정지 내 발굴조사(시굴)	국토문화재연구원
정비계획	2017	종합정비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보존·정비 및 활용	2009	성벽보수 및 탐방로 정비	
	2010		
	2020	문학산성 성벽 및 탐방로 정비	

5. 이천 설봉산성

이천 설봉산성은 전체 둘레 1,600m의 포곡식 석축산성으로서, 사적 제423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 유물의 출토로 인해 당시 이미 관방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석축성벽의 경우 6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이천시·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17, 8쪽).

설봉산성의 동남쪽에 위치한 설봉호를 중심으로 설봉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설봉서원과 영월암,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 이천세라피아(세계도자센터) 등의 문화시설이 있고, 설봉산 일대로 등산로가 잘 개설되어 있어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 설봉공원에서 설봉산 별빛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천세라피아에서 홀수 년마다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탐방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천 설봉산성은 1994년도에 동문지의 성벽이 보수된 이래, 2002년까지 성벽 위주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팔각제단과 안내관 등 성내 유구와 편의시설의 정비를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경우, 1997년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성의 전체 현황을 확인하였고 1998년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6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성벽의 구조와 축조기술, 그리고 장대지, 건물지, 수구지와 같은 성내시설물을 확인하였다(<표 7>).

<표 7> 이천 설봉산성 학술조사와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학술조사	1997~1998	구간별 성벽 현황 조사 및 지표조사 및 장대지, 건물지, 남벽구간 발굴조사(1차)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추정 건물지, 서벽 구간 발굴조사(2차)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2000	추정 건물지, 동성벽 발굴조사(3차) 및 보루 1·2 지표조사	
	2003	추정 수구지 및 성벽 조사(4차)	
	2004	추정 수구지 확장 및 성벽 조사(5차)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2005	성벽 및 가지구의 정밀 발굴조사(6차) 및 칼바위 샹터 부근 평탄지 시굴조사	
정비계획	2017	이천 설봉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천시
보존·정비 및 활용	1994	동문지 성벽 보수공사	
	1996	동문지 및 동벽 일부 구간 보수	
	1999~2000	남성벽 보수 및 팔각제단 정비	
	2001~2002	서문지 43m구간 보수 및 안내판 정비	

현재 이천 설봉산성의 성벽과 문지는 현대식 성벽으로 복원되어 있으며, 완전히 신재를 사용한 구간이 많다. 신재와 원래 성돌이 함께 쓰인 성벽 구간의 경우 거의 신재로 구성된 성벽에 원래 성돌이 불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어 완전히 신재를 사용한 정비구간보다 이질감이 느껴진다.

6. 세종 운주산성

세종 운주산성은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 제1호로서 전체 둘레가 3,098m에 이르는 대규모 석축 산성이다. 내성과 외성으로 된 매우 특이한 형태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성내에는 문지와 건물지, 우물터, 추정 절터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초기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백제토기편이 출토되면서 백제가 축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公州大學校博物館·忠淸南道 燕岐郡, 1998, 132쪽; 燕岐郡·忠南發展研究院, 2002, 11·92쪽).

세종 운주산성은 정확한 정비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1996년 지표 조사와 함께 일부 성벽 보수 및 진입로 정비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2014년도에 기존 복원된 성벽구간의 보강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2014년 8월 27일 보도자료). 서문지를 비롯한 일부 구간의 성벽 복원이 완료된 상태이다(<표 8>).

<표 8> 세종 운주산성 학술조사와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학술조사	1996	정밀 지표조사 실시	공주대학교박물관 ·연기군
	1998	성벽 발굴조사	
	2000	시굴조사 실시, 건물지 1기 확인	연기군· 충남발전연구원
	2002	서문지 안쪽 대지 발굴조사	
보존·정비 및 활용	1996	성벽 및 진입로 정비	연기군
	2014	1996년 정비성벽구간 재정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운주산성은 발굴조사와 성벽 복원이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문지 일대의 성성벽이 현대식 성벽으로 복원되었고, 별도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없이 유적 공원화 및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산성은 무분별한 정비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정체성을 잃어갈게 될 것이다.

7. 아차산 일대 보루군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사적 제455호로서 아차산보루와 용마산보루, 시루봉보루, 수락산보루, 망우산보루 등 17여개의 보루로 이루어진 유적이다(<표 9>).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현재 고구려 변경지역 요새의 구조와 성격, 방위 체계, 군 편제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양시은, 2020, 48쪽).

<표 9> 아차산 보루군의 기본 현황⁶⁾

번호	명칭	위치	둘레 (m)	지정면적 (㎡)	관리주체
1	홍련봉1보루	서울 광진구	117	66,654	광진구
2	홍련봉2보루		179	2,458	
3	아차산1보루	서울 광진구·경기 구리시	103	54,569	구리시
4	아차산2보루	경기도 구리시	40	32,803	
5	아차산3보루	서울 광진구·경기 구리시	304	73,764	
6	아차산4보루		238	67,079	
7	아차산5보루		250	48,893	

6) 경기문화재단 기문화재연구원 2008: 63의 표를 수정.

8	용마산1보루	서울시 광진구	77	49,394	광진구
9	용마산2보루		79	50,430	
10	용마산3보루	서울시 중랑·광진구	216	65,793	각 지자체
11	용마산4보루		228	73,757	
12	용마산5보루	서울 광진구·경기 구리시	110	77,318	구리시
13	용마산6보루	서울시 중랑·광진구	123	55,687	각 지자체
14	용마산7보루	서울시 중랑구	40	45,164	중랑구
15	시루봉보루	경기도 구리시	205	60,403	구리시
16	수락산보루	서울시 노원구	154	45,164	노원구
17	망우산보루	서울 광진구·경기 구리시	126	57,729	구리시

1977년도 구의동보루 조사과정에서 한때 백제 고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1994년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1997년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시루봉보루, 아차산 3보루, 용마산 2보루, 흥련봉 1·2보루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이들 보루 중 상당수가 고구려 보루로 밝혀졌다(양시은, 2020, 43~48쪽). 현재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남한지역 고구려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유적 으로서 현재까지도 발굴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발굴조사와 함께 1990년대 말부터 현재 까지 꾸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표 10>). 아차산 4보루와 시루 봉보루의 성벽이 일부 복원되었으며, 각 보루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탐방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의 기본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도심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여 탐방객이 많은 편이다. 구리시 방면 등산로 입구에 조성된 ‘고구려대장간마을’은 아차산 일대 보루군 과 연계하여 유적전시관·체험학습장을 조성한 사례이며, 최근에는 광진구 방면인 흥련봉 1·2보루에서도 야외전시관 건립을 위한 정비가 진행 중이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수도권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각 지자체별 관광자원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경계에 위치한 보루의 경우 관리 부재와 보존·정비 및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걸쳐있는 아차산 4보루의 경우, 두 지자체에서 동시에 박물관 건립을 추

진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08년 5월 28일 기사). 현재는 두 지자체의 합의로 아차산 1·3·4·5보루의 관리는 구리시로 통합되었다. 이외에도 용마산 3·4·6보루 등 두 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보루가 있어, 앞선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0> 아차산 일대 보루군 학술조사와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학술조사	1977	화양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	화양지구발굴조사단
	1990	아차산 일대 보루군 현장조사	문화재관리국
	1994	아차산 일대 보루군 지표조사	구리시 구리문화원
	1997~1998	아차산 4보루 1·2차 발굴조사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8	아차산·용마산 일대 지표조사	건국대학교 박물관 ·광진문화원
	1999~2000	시루봉보루 1·2차 발굴조사	서울대학교박 물관
	2004	홍련봉 1보루 1차 발굴조사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 소
		홍련봉 2보루 1차 발굴조사 아차산 3보루 발굴조사	
	2005~2006	용마산 2보루 1·2차 발굴조사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7	아차산 4보루 3차(성벽구간) 발굴조사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9~2011	시루봉보루 3·4차 발굴조사	서울대학교 박물관
	2012~2013	홍련봉 1·2보루 2차 발굴조사	한국고고환경 연구소
	2016~2018	홍련봉 1·2보루 3차 발굴조사	
정비계획	2005	아차산 일대 보루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구리시
		아차산 고구려유적 보존·활용에 대한 기본조사·연구	광진구
	2008	경기도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 연구원

구분	연도	내용	시행기관
	2009	아차산 4보루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구리시
	2011	시루봉보루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2016	아차산 일대 보루군 광진구 지역 정비계획 수립	한강문화재연구원
	2018	홍련봉 1·2보루 보호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중간 설계	광진구
수락산 보루 종합정비계획 수립		노원구	
보존 · 정비 및 활용	1996		수락산 1보루 계단과 체육시설 설치, 유구 훼손
	1998	아차산보루 복토 및 잔디 식재, 안내판 설치	구리시
	2000	시루봉보루 복토 및 안전펜스 설치	노원구
	2006	수락산 1보루 유구 복토 및 우회 등산로, 안내판 설치	
		홍련봉보루 보수공사, 사면정리 및 복토 실시	광진구
	2006~2007	용마산 2보루 보수공사, 경사면과 유구 복토 및 야생화 식재, 우회 등산로와 안내판 설치	
	2007	아차산 3보루 복토 및 아차산 1·2·3·5보루 안전펜스 설치	구리시
		망우산 1보루 상부 군 시설 철거 및 복토공사 실시, 테크와 안내판 설치	
	2010	아차산 4보루 보수공사	구리시
	2012	시루봉보루 보수공사	
	2014	아차산 3보루 탐방로 설치 아차산 1·2·3·5보루 안전펜스 철거	
	2016	집중호우로 인한 시루봉보루 재보수공사	노원구
2017	수락산 1보루에 대한 재복토 및 재초작업 실시		

이상에서 7개소의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및 지속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유적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여러 문제가 지적된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각 유적별로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 마련된 종합정비계획의 경우, 향후 발굴계획만 제시하거나 축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적 성벽 복원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적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활용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성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벽 정비의 경우, 7개소 중 6개소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 축조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성벽축조에 사용된 석재와 전혀 다른 석재를 사용하는 등 단순한 형태적 복원 수준에 그친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학술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내용이 실제 정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대식 성벽 복원’이 관행화 되었고, 이후 재수립한 종합정비계획 역시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되는 등 그 한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유적의 원형보존이라는 원칙을 배제한 정비로서,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표 11> 주요 사례의 보존·정비 및 활용 현황과 문제점

번호	유적명	문화재 지정	보존·정비 및 활용	보존·정비 및 활용상의 문제
1	보은 삼년산성	사적	성벽 문지 탐방로	①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② 부실한 정비계획 수립과 새로운 정비계획 부재
2	단양 온달산성	사적	성벽 탐방로	①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성벽 복원 ② 산성 내 편의시설과 안내 부족
3	단양 적성	사적	성벽	①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② 탐방로(외부) 관리 부실
4	인천 문학산성	시 기념물	성벽 탐방로 전시관	①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② 산성과 성벽에 대한 안내 부족
5	이천 설봉산성	사적	성벽 탐방로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6	세종 운주산성	시 기념물	성벽 탐방로 유적공원	① 축성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현대식 성벽 복원 ② 종합정비계획 없는 복원·정비
7	아차산 일대 보루군	사적	성벽 탐방로 전시관	4개 지자체가 연결해 있어 통합관리가 어려움

보은 삼년산성이나 단양 온달산성, 인천 문학산성, 아차산 보루군의

경우 유적과 연계하여 역사관을 조성하거나 지역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다른 유적들의 경우 대체로 탐방객의 편의와 관련된 시설 위주로 정비 및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탐방객에 유적을 알릴 수 있는 안내 시설 또 유적과 연계한 문화 시설의 설치는 미비했다. 또 단양 적성 등 유적 내 탐방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탐방객의 통행이 어려운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정비와 복원이 이루어졌지만, 관리 부재로 인해 종합정비계획은 단지 ‘계획’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전시 행정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유적의 정비·활용에 있어 아차산 보루군의 사례처럼 유적이 지자체의 경계에 위치한 경우, 각 지자체별로 보존·관리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존·정비 및 활용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통합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IV. 음성 망이산성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

1. 보존·정비 및 활용 방향

1) 학술적 방향

망이산성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된 ‘연속 유산’으로서, 그 어느 유적보다 탁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원형을 보존하고 효과적이고 올바른 정비와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학술 조사와 학술연구이다. 특히, 음성군 지역에는 백제 때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 부분(내성)과 함께 석축성(외성)의 남쪽 구역 일부 등 망이산성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유구들이 남아 있는 바, 음성군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유적의 성격과 양

상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시·발굴조사 성과와 학술 연구를 통해서 고증된 망이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유적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형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문화재 활용을 앞세운 유적 원형 훼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는 철저히 배제하고,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행정적 방향

망이산성은 충북 음성군과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와 연결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술조사와 보존·정비, 활용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음성군,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안성시) 간의 협조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각 지자체 간 행정적 협력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3개 시·군 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조직하여 망이산성의 가치와 보존·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망이산성은 충청북도와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관리 및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면 국가 사적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음성군은 망이산성의 보존과 관리 및 사적 승격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승격을 염두에 둔 행정적 장기 전략 수립과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은 사적으로의 승격을 준비하는 음성 망이산성에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망이산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연속 유산'으로서 가치를 부각시키고, 이와 동시에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경제적 방향

최근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유적,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유적은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치·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의 사회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탐방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이한용, 2017, 308쪽).

문화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생생문화재' 사업과 '살이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16년 2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즉 문화재 활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웰빙(Well-being) 라이프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도심지 또는 명산, 유명 관광지 등에 소재한 산성은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향후 가입 희망 체육 동호회'와 '생활체육 경험률' 조사에서 등산이 각각 22.8%, 13.1%로 1, 2위를 차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34·36 쪽). 그러나 현재 음성 망이산성의 경우 탐방객 수가 많지 않은 편이므로, 탐방객 유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

1) 보존·정비 방안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는 유적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와

성벽과 문지, 성내 유구에 대한 ‘유적’, 안내판, 편의시설, 소방방재시설 등의 ‘시설’로 구분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12>).

<표 12> 음성 망이산성 보존·정비 대상 및 내용

구분	정비 대상	주요 보존·정비 내용
기초 정비	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망이산 일원 수목 현황과 생태환경 조사 수목 및 잡풀제거(토종수목 보존, 외래수종 벌목)
	배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방로 배수로 정비 기존 배수로 정비 및 활용
	탐방로 및 등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벽 내·외측 탐방로 정비 산성 내부 탐방로 정비 발굴조사 이후 정비구간 탐방로 정비 등산로 정비
유적 정비	성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조사 완료 구간 정비 미발굴 구간: 성벽 노출 및 정비
	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성 서문지와 남문지 정비 내성 북문지(추정) 발굴조사 이후 정비
	성내 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성 서성벽과 남성벽 내측 집수지 정비 봉화대 정비
시설 정비	안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안내판: 종합안내판과 개별유구안내판 설치 원활한 관람을 위한 길찾기안내판 설치 유적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방로 주변 편의시설 설치
	소방방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지점 소방방재시설 설치

(1) 기초 보존·정비 방안

산성의 축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에도 방어와 주변감시를 위해 수목을 제거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벽의 보존과 당시의 역사적 경관을 확보하고 조망권 확보, 관람의 편의성을 위해서 성벽 주변의 수목 정비가 필요하다.

수목의 보존·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망이산의 수목 현황과 식생 환경을 조사하여 보호해야 할 수목(토종 수목)과 제거해야 할 수목(외래 수목) 등을 선별하고, 성벽의 인지 및 내·외부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에서 수목 및 잡풀을 제거하도록 한다. 단, 보호 수준으로 인해 조망권과 성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이전하여 식재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적의 훼손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목과 빗물에 의한 유실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고 유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수목정비와 함께 배수시설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배수시설은 토사와 이물질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 혹은 상실되면 성벽을 훼손시키고 그 주변지형을 변형시켜 유적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수시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산성은 주로 성벽 내·외측의 회곽로와 산성 내부에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탐방로로 활용한다. 탐방로는 수목 정비와 함께 외성 성벽 내·외측 탐방로를 신설하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성벽의 내·외측 탐방로는 자연환경과 외부 충격, 지속적인 하중 등의 영향을 받아 성벽이 훼손되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훼손 혹은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반드시 보강시설을 설치하고 상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탐방객과 등산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산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등산로와 임도를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망이산성의 내·외성 동성벽의 일부구간은 이천시 관할이고, 내성 북성벽 동측은 안성시 관할이기 때문에 삼자간 협조를 통해서 함께 탐방로를 개설하여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유적 보존·정비 방안

유적의 정비는 무너진 성벽 위에 신재를 사용한 현대식 성벽을 쌓아올리는 것만을 의미하였고, 이는 곧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원 성벽이나 유구의 축조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정비로 이어졌다.

음성 망이산성은 그간 발굴조사를 통해 외성의 서·남성벽의 구조와 규모, 축조방식 등에 대해서 밝힐 수 있었다. 2009년도와 2012년도, 2017년도에 외성 서성벽과 서남치성, 남성벽과 남치성에 대한 정비·복

원이 이루어졌고 외성 남성벽의 일부구간과 동성벽 구간은 현재 미발굴 상태이다. 따라서 성벽 정비계획은 기존 발굴구간과 미발굴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 발굴조사된 성벽구간은 대부분 정비·복원을 마쳤으나, 성벽 외측으로 수목과 잡풀이 많이 자라있는 상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목은 성벽 훼손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 미발굴 구간(내·외성 동성벽 및 남성벽 일부 구간)은 성벽이 대부분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을 노출시키고,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정비를 통해서 탐방객에게 망이산성 성벽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성문은 성곽유적을 구성하는 핵심시설로서, 망이산성은 1994년도와 1998년도에 남문지와 서문지 총 2개소가 조사 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 이후 정비·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복토되었거나 방수포로 덮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바 문지의 정비가 필요하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지의 너비와 폭, 잔존높이를 기준으로 발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성내 유구는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서 건물지 1기와 집수지 2기, 봉화대 1기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발굴조사를 통해서 실체와 역사적 가치가 입증된 유구는 ‘유구 표시’, ‘유구 전시’, ‘복원’ 등의 방법으로 정비가 이루어진다. 음성 망이산성의 경우, 이미 복토된 건물지는 발굴조사된 위치에 잔디나 식물을 식재하는 ‘유구 표시’ 방법으로 정비하고, 집수지는 이미 복원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여 복원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봉화대는 현재 덮여 있는 흙을 걷어내고 발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여 유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봉화대의 설명과 실측도, 사진 등을 포함한 유구안내판을 설치해서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적의 보존·정비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술조사와 연구를 통해 고증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비를 담당하는 시공사도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제시된 원칙에 따라 정비·복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여전히 원형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굴조사된 유적을 최대한 보존하고, 불가피하게 정비가 이루어지더라도 과도한 복원과 정비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정비 시공자와 고고학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정비 현장에 고고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시설 보존·정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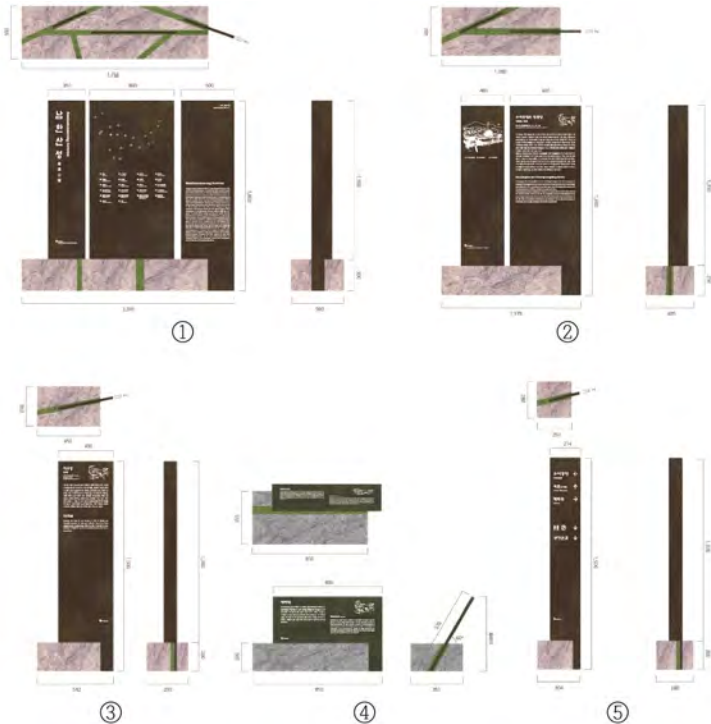
시설 보존·정비 대상은 안내판과 편의시설, 소방방재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안내판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 등산객과 관람객의 눈높이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안내판은 유적 내부의 주요 진입로와 탐방로, 관람객이 집중되는 곳에 유적의 전체적인 설명과 평면도, 사진, 동선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안내판과 길찾기안내판을 설치하고, 각 유구에는 유구의 설명과 실측도와 사진 등을 포함한 유구안내판을 설치하여 탐방객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적 관련 안내판과 길찾기안내판은 문화재청에서 2010년 발간한 『문화재안내판 설치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에 따라 ‘산성·성곽 문화재 유형’의 사례를 제시한다(<사진 6>).

유적 외부의 등산로와 전망대에는 유적의 역사와 문화, 서식 동·식물 등 망이산과 산성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미있고 인식하기 좋은 ‘만화형식’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유적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도록 한다.

현재 음성 망이산성에 정자와 휴게의자, 운동시설 등의 일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앞으로 탐방객 유입에 필요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추가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음성군 매산낚시터 방향과 신한정

밀공업 방향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신설하여 유적의 접근성을 높이고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적 내에도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산성이라는 유적의 위치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적 내에는 유지와 관리가 용이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진 6> 안내판 예시(문화재청 2010)

- ① 종합안내 ② 권역안내 ③ 유구안내1 ④ 유구안내2 ⑤ 길찾기안내

마지막으로 음성 망이산성은 망이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어 산불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 망이산성 외성 남성벽에서 봉화대로 이어지는 내부 탐방로 사이에 산불감시초소(산불감시탑)가 있지만, 산성 전체를

조망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산불감시기능이 떨어지고 즉각적인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방방재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 주변의 식생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탐방로와 시설물 주변에 산불을 감시할 수 있는 CCTV와 소화기와 소화용 모래, 삽 등 소화장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성의 각 진입로에 취사용 가스와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의 화재 위험성과 휴대금지 등 관련 정보를 공지하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문화재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 활용 방안

성곽유적은 성의 위치와 입지를 비롯한 경관적 요소와 그 유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 요소, 그리고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음성 망이산성의 활용 방안을 생태관광(자연관광)과 문화관광 두 방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생태관광 자원

생태관광(혹은 자연관광)은 '생태학(Ecology)'과 관광의 합성어로서, 자연 보전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의 한 형태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그에 따라 높아진 자연 보전 인식으로 최근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보았듯이, 세종 운주산성이나 인천 문학산성과 같이 최근에는 산성을 공원화하여 자연관광 혹은 생태관광을 병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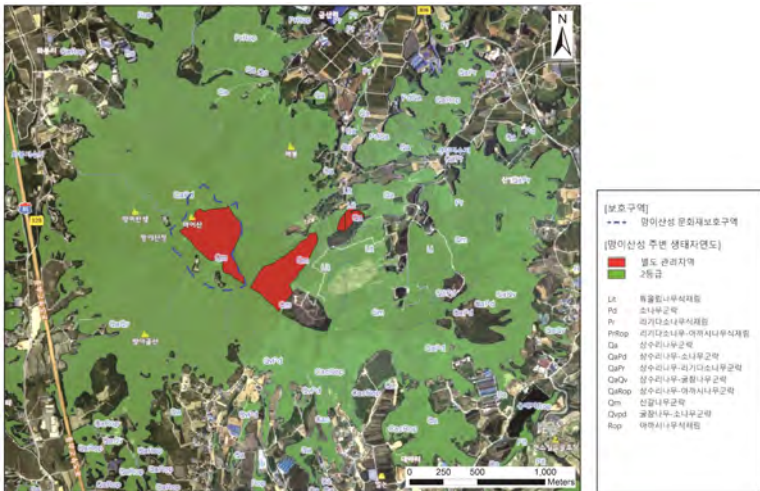
음성 망이산 일대에도 정상부를 중심으로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곽지역에는 산갈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굴참나무군락 등 다양한 식생이 형성되어 있어⁷⁾, 생태관광 자원

7) 산과 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한 자연환경을 생태 가치·자연성·경관 등의 가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기준에 따르면, 망이산 일대는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현재 음성 망이산성 내부에는 집수지와 서남치성 일대 정자, 약수터, 봉화대 등 주요 지점에 망이산의 사계절을 보여줄 수 있는 꽃(음성군의 郡花인 개나리 등)과 나무를 식재하고 집수지를 이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음성군 양덕리에 위치한 양덕저수지의 트레킹(Trekking) 코스와 연계하여 망이산 등산로를 이용한 ‘망이산 둘레길’ 혹은 ‘망이산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망이산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성 망이산성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자원이 개발된다면 자연환경의 보전과 함께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망이산 생태자연도((주)테라픽스 제공)

2등급에 해당하며, 정상부 및 일부지역은 별도 관리지역(산림보호)으로 분류된다.

(2) 문화관광 자원

문화관광은 역사, 생활, 예술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물리적 환경개선과 경제적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신우성, 2005). 따라서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은 지역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학습 기회와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상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13>에 제시된 프로그램들 가운데 망이산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 ‘동행 문화유산’, ‘지역문화유산교육’,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유람유랑 사업’이다. 현재 음성군은 유람유랑 사업의 일환으로 ‘권근 삼대 묘소 및 신도비’(충청북도 기념물 제32호), ‘음성 권근 및 경주이씨 묘표’(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7호)를 활용한 ‘양촌 선생, 하늘을 그리다’와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보물 제1111호), ‘동의보감 초간본(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5호)’을 활용한 ‘랜선꿈잡이학교 허준의 꿈, 한의사’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망이산성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선행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망이산성과 관련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 지원사업에도 응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의 경우 ‘충주읍성길따라 친구와 톡Talk-톡Tok’(충주),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옥주(옥천), ‘화랑 김유신, 삼국을 품다’(진천), ‘정이 품송으로 마실가자!’(보은), ‘영동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영동), ‘문화재 읽어주는 위인, 김득신’(증평), ‘신에게 허락받은 죽령 옛길 여행’(단양) 등 충북 내 여러 지자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 홈페이지).

<표 13> 충북지역 내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현황(2021년 기준)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시행기관
1	생생문화재사업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단히고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상품(문화재청 2018: 10)	문화재청
2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 프로그램(문화재청 2018: 13)	
3	전통산사 문화재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재 해설, 강의, 체험, 공연 등 산사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문화재청 2018: 14)	
4	동행, 문화유산	노인과 보호시설 아동, 다문화가정과 장애인들이 무료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2020년 5월 1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5	고택·종갓집	고택·종갓집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현대 생활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문화재청 2021: 452)	
6	지역문화유산교육	지역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문화유산프로그램 운영(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 홈페이지)	
7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	세계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구축·운영, 2021년 사업테마는 ‘미디어 아트’임(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2020: 36)	
8	유람유랑	충북도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유산 활용사업(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 홈페이지)	충청북도

다음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음성 망이산성은 음성군민과 함께 변화, 발전해온 지역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 만족도와 문화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사례로는 문화재청에서 위촉하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 ‘망이산 자연보호 자원봉사단’, ‘음성군 역사문화 아카데미’ 등이 있는데, 먼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은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을 활성화하는 문화재보호 활동으로 주민 주도의 문화유산 지킴이 운동이다(문화재청, 2019, 11쪽).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탐방객의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산행을 즐기며 문화유산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고 산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망이산 자연보호 자원봉사단’은 지역 청소년과 일반인을 모집하여 망이산 일대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우 음성군 관내 중·고등학교 봉사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역사문화 아카데미’와 같이 지역 대학 및 박물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망이산성의 중요성을 비롯한 음성군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타 지역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공적인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여 발전시키도록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체험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아무리 유익하다고 해도 결국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음성 망이산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자면 음성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망이산성 관련 자료와 유튜브 또는 각종 SNS 계정에 망이산성의 사계절의 풍경, 체험활동, 봉사단의 활동 모습 등을 게시하여 망이산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적의 현황과 주요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상호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바, 학술적, 행정적, 경제적 측면으로 보존·정비 및 활용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유적과 그 주변환경, 관련 시설의 보존·정비 방안과 생태환경과 문화환경적 측면에서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망이산성은 삼국시대 백제에 의해 축조된 이후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용된 산성으로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속 유산’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망이산성이 현재 음성군과 경기도 안성·이천 등 세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본고의 주제는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이지만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보존·정비가 이루어져서는 망이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보존·정비 및 활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언급한대로 망이산성의 효과적인 학술조사 및 보존·정비 및 활용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실현된다면 지역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음성군은 최근 망이산성의 보존과 관리 및 사적 승격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앞으로 진행될 음성 망이산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이 이후 문화재 관리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투고일: 2021.11.14, 심사개시일: 2021.11.22, 게재확정일: 2021.12.13.]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08, 『경기도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 公州大學校博物館·忠淸南道 燕岐郡, 1998, 『燕岐 雲住山城』.
- 국립청주박물관, 2002, 『年報 2001年度』.
- 국립청주박물관, 2004, 『年報 2003年度』.
- 국립충주대학교 박물관, 2011, 『단양 赤城 어제와 오늘』.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안성 망이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2, 『망이산성 학술조사보고서』.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 보고서(1)』.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 망이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 문화재청, 2010,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
- 문화재청, 2016, 2월 23일 보도자료.
- 문화재청, 2018,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10주년 계기 자생력 강화방안 연구』.
- 문화재청, 2019, 『2019 문화재지킴이 가이드북』.
- 문화재청, 2020년 5월 11일 보도자료.
- 문화재청, 2020, 『2020 사적 정기조사』.
- 문화재청, 2021,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400선 - 문화유산 유 유자적-』.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2020,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http://www.heritage.go.kr>).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 국민생활체육조사』.
- 백종오, 2016, 「한국 성곽 문화재 보존 관리의 방안과 과제-인천 문학산성, 국가 사적 및 지방 기념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연구』 6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 報恩郡·(주)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 2001, 『三年山城 保存管理 綜合計劃』. 보은신문, 2009. 11. 26, 끝없는 삼년산성 복원.
- 성정용·양시은, 2021,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의미와 활용 방안」, 『文化財』 54-3.
- 신우성, 2005, 「연천군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전곡리 선사유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포럼』 합본호.
- 세종특별자치시, 2014. 8. 27. 운주산성 서문지 성곽 새단장했어요.
- 양시은, 2020, 「한강유역 고구려 보루의 조사 성과와 연구 쟁점」, 『고고학』 19-2.
- 燕岐郡·忠南發展研究院, 2002, 『燕岐雲住山城』.
- 윤성호, 2019,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보수정비와 향후 전망」, 『先史와 古代』 60.
- 이천시·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17, 『설봉산성 종합정비계획』.
- 이한용, 2017, 「국내외 문화유적 활용사례를 통해 본 한국 대중고고학의 가능성과 역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인천광역시·한울문화재연구원, 2020, 『인천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국토문화재연구원, 2021, 『인천 문학산성 성벽 추정지』.
- 인천뉴스, 2020. 10. 11, 인천의 진산 문학산 정상 “시민 품으로”.
- 인천투데이, 2015. 10. 14, 문학산 정상 50년 만에 개방…인천 한 눈에.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보은 삼년산성 - 발굴정비 기초설계 보고서-』.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음성 망이산성 1, 충북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 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음성 망이산성2 충북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報恩 三年山城-東門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 忠北大學校博物館, 1991, 『丹陽 赤城 地表調査報告書』.
-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1, 『三年山城-기본 자료 및 종합 보존·정비계획 안-』.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2, 『望夷山城-忠北 區間 地表調査 報告書-』.

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 홈페이지(<http://www.cbmhjstory.com>).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음성 망이산성 -2014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온달산성 -2016년 발굴조사 보고서-』.

한겨레신문, 2008. 5. 28, 구리시, ‘고구려 경쟁’ 광진구에 발근.

한국성곽학회, 2008, 『삼년산성』, 충청북도.

한국성곽학회, 2011, 『온달산성』, 충청북도.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단양적성-북문일원 보수공사 서벽구간 시굴조사 보고서-』.